

포항에 1.5조 투자, 국내 첫 '글로벌 데이터센터 캠퍼스' 조성

산업부·SK에코플랜트 등 8곳 맞손
블루밸리산단에 30MW 데이터센터
국제 해저광케이블 육양국 들어서

경북 포항에 국내 최초로 '육양국 연계 글로벌 데이터센터 캠퍼스'가 조성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경상북도, 포항시, SK에코플랜트, DCT텔레콤, KB자산운용, 한국전력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등 8개 기관은 8일 경북도청 화백당에서 '육양국 연계 글로벌 데이터센터 캠퍼스' 조성을 위한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체결식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 천영길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실장, 이강덕 포항시장, 김태욱 한국전력공사 부사장, 김병오 한국산업단지공단 기업지원본부장, 박경일 SK에코플랜트 대표이사, 심장석 DCT텔레콤 대표이사, 김형운 KB자산운용 대체투자부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투자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S



경북도는, 포항에 국내 최초로 '육양국 연계 글로벌 데이터센터 캠퍼스'를 조성한다. (왼쪽에서 여섯번째 이철우 경북도지사) /경북도

K에코플랜트와 DCT텔레콤·KB 자산운용은 경북 포항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 내에 총사업비 1조 5200억 원을 투자해 30MW 데이터센터 4개동과 국제 해저광케이블 및 육양국을 2028년까지 조성할 예정이다.

국가 간 통신의 99%를 처리하는 국제 해저광케이블 기지인 육양국과 연계한 더욱 빠르고 저렴한 국제통신망을 이용해 글로벌 수요를 겨냥한 다수의 데이터센터가 집적되는 점으로, 싱가포르 등 선진국에서 활용되고 있는 데이터 산업 모델이다.

포항에 투자되는 '육양국 연계 글로벌 데이터센터 캠퍼스'는 국제경쟁력을 갖춘 디지털 인프라로 동북아시아 국제통신망의 주요 거점 역할과 함께, 수도권과 부산 중심의 상업용 데이터센터 관련 산업이 지방에서도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날 협약에서 경북도는 산업통상자원부, 포항시, 한국전력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등과 긴밀하게 협력해 전력 공급 및 인·허가사항을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착공을 앞둔 경북도청 신도시 KT 공공형 클라우드 데이터센터에 이어, 포항에 대규모 글로벌 데이터센터 캠퍼스가 들어서면 경북은 AI·빅데이터 등 첨단 지식 서비스 산업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디지털 인프라를 갖추게 된다"며 "이를 바탕으로 데이터 관련 기업을 유치하고 인력양성 등 다양한 정책들을 펼쳐 경북이 디지털 경제 시대를 주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북=장영우 기자 ycyw57@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전남도

UAE와 재생에너지 등 협력 도모

전남도가 세계 속의 대도약을 위해 아랍권과의 교류 물꼬를 댔다.

전남도는 김영록 전남지사가 아랍에미리트(UAE)와 재생에너지, 스마트팜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상호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논의는 아랍에미리트의 셰이크 아흐메드 빈 파이살 알 카시미 왕자(로얄패밀리 오피스 소유주) 일행이 지난 9일 전남을 방문해 해남 솔라시도와 강진 스마트팜을 둘러보는 가운데 이뤄졌다.

/전남=양수영 기자

광주시

도시재생 사업 후보지 선정

광주시는 국토교통부 공모 2023년 상반기 도시재생 사업 후보지로 송암산단 도시재생 혁신지구가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도시재생 혁신지구사업은 지난해 7월 발표한 새정부도시재생 추진방안 중 경제거점 조성을 위한 것으로, 산업·상업·주거 등이 집적된 지역거점을 조성하는 지구단위 개발사업이다.

이 사업에 선정되면 5년간 국비 250억 원을 지원받고, 통합심의 등 행정적 지원과 함께 건축규제 완화 등이 가능하다.

송암산단 혁신지구 사업은 산단 내 유휴 부지에 5년간 1600여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 문화·디지털 모빌리티 애프터마켓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광주=양수영 기자

금감원·지자체·금융권 6곳 협업해 英 런던서 '부산 금융' 등 적극 홍보

13일 '공동 런던 투자 설명회'서
기반시설·디지털 금융 혁신 등 알리

세계 금융·투자 기관이 밀집해 있는 국제 금융의 중심지 영국 런던에서 우수한 금융 기반 시설을 가진 '부산 금융'을 홍보한다.

부산시는 현지 시각으로 오는 13일 오전 10시 영국 로열 랭커스터 런던 호텔에서 '금감원·지자체·금융권 공동 런던 투자 설명회'가 열린다고 밝혔다.

이번 투자 설명회는 한국 금융 산업의 국제화를 도모하기 위해 금융감독원과 한국의 금융 중심지인 부산시와 서울시, 그리고 6개 금융 회사가 최초로 협업해 개최하는 대규모 투자 설명회다.

금융감독원장, 부산시 행정부시장, 서울시 정무부시장, 6개 금융회사 대표단(신한금융지주 회장, 우리금융지주 회장, 미래에셋증권 회장, NH투자증권 대표이사, 삼성생명 사장, 코리안리 대표이사), 주영국한국대사,

영국 외무부 부장관, 주한영국대사, 한국투자공사 본부장, 부산국제 금융진흥원 원장, 해외 투자회사 임직원, 투자자 등 230명 내외가 참석한다.

이번 투자 설명회에서 영국 정부 관계자, 해외 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한국 금융 산업의 강점과 투자 매력, 그리고 한국의 금융 중심지인 부산과 서울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세계적인 금융도시인 영국 런던에는 각국의 금융 기관들과 투자 기관들이 밀집해 있어, 투자 파급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시는 영국 정부 관계자, 해외 투자자에게 한국의 금융 중심지이자 동북아시아 관문 도시로서 발전하고 있는 부산의 우수한 금융 기반 시설과 디지털 금융분야에서의 혁신 정책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부산 진출·투자에 관한 관심을 유도하고, 이들과 전략적 관계를 구축해 지속적인 교류를 이어갈 예정이다.

/부산=김영찬 기자 metrobusan@

울산 120 해울이콜센터, 광역지자체 1위

KS-CQI 평가서 4년 연속 달성

전화기 속의 작은 시청, '울산 120 해울이콜센터'가 한국표준협회 주관 '2023년 콜센터 품질지수(KS-CQI)' 평가 '광역지자체' 부문에서 1위에 선정됐다.

이에 따라 울산 120 해울이콜센터는 2020년부터 4년 연속 1위 달성과 함께 9년 연속 우수콜센터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KS-CQI는 국내 콜센터 산업의 발전과 경쟁력 향상을 위해 한국표준협회에서 개발한 콜센터 상담 서비스 품질 지수다.

올해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약 3개월간 전국 54개 업종에 대해 217개 기업과 38개 특·광역시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콜센터 이용 고객 만족도'(7개 항목)와 '전화 모니터링 평가'(5개 항목)를 조사해 전체 평균보



울산시청 전경. /울산시

다 높은 성적을 낸 콜센터를 '우수콜센터'로 선정했다.

울산 120 해울이콜센터의 올해 콜센터 이용 고객 만족도 및 전화 모니터링 평가 항목 합산 점수는 80.5점으로 전체 평균 76점보다 4.5점 높았으며, 특히 특·광역시 가운데 12개 전 항목 점수가 평균 점수보다 높은 콜센터는 울산시가 유일하다.

/울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

경남도, 진해신항 발주에 건설산업 활기

총사업비 확정 후 입찰공고 예정

경남도는 창원시 진해구 진해신항 건설을 위한 대형공사 발주가 순차적으로 계획됨에 따라 지역 건설산업 활기가 기대된다고 10일 밝혔다.

경남도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진해신항 건설을 위해 기반시설인 남방파제(1단계), 남측방파호안, 준설도투기장(3구역) 호안에 대한 기초조사를 완료한 데 이어 최근 길이 1.4km의 남방파제 1단계 축조공사 총공사비를 확정하고, 설계시공 일괄입찰(단기) 방식으로 발주(사업비 2944억 원)하여 입찰에 참여한 현대건설소시업과 계약을 진행 중에 있다.



경남 창원시 진해구 진해신항 조감도.

또 길이 1.8km 남측방파호안과 5.9km의 준설도 투기장(3구역) 호안 축조 공사도 하반기 발주를 목표로 기획재정부와 총사업비 협의를 진행 중이다. 총사업비가 확정되면 설계시공 일괄입찰(단기) 방식으로 입찰공고 할 계획이다.

/창원(경남)=이도식 기자

전남도, 유해시설 정비에 국비 138억 확보

농식품부 '농촌 공간정비사업' 선정

전남도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 공간정비사업 2023년 3차 공모에 담양삼만지구, 해남 금호지구가 선정돼 국비 138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농촌 공간정비사업은 농촌의 정주환경을 악화시키는 마을 인근의 공장, 빈집, 축사 등 유해시설을 정비해 주거·서비스·일자리 기반시설 구축 등 공간재생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2년부터 시행, 전남도는 10개 시군 11개 지구가 선정돼 총 사업비 1천 357억 원 중 국비 678억 원을 확보했다.

유재광 전남도 농업정책과장은 "담양 삼만지구와 해남 금호지구의 정주환경 위태요소를 철거하고 재생시설을 설치해 해당 지구가 농촌다움을 회복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내년에도 더 많은 시군에서 농촌 공간정비사업을 시행하도록 정책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

김천시

자전거 출퇴근 챌린지 진행

김천시는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를 줄이고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문화 조성을 위해 작년 이어 자전거 출퇴근 챌린지를 개최 중이다.

올해 행사는 2회에 걸쳐 추진 중이며 1차 행사는 지난 5월 진행됐고, 2차 행사는 오는 9월 18일부터 10월 6일까지 예정되어 있다.

행사는 전용 앱 '에코바이크'와 추진된다. 스마트폰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에코바이크' 앱을 내려 받아 회원가입 및 참여 도시를 선택하면 된다.

/김천(경북)=류희철 기자 rhc1369@